

유럽공통참조기준과 포트폴리오 설계

-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질적평가 모델 개발 -

윤 선 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견교사)

《요약》

『유럽공통참조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언어 교수·학습·평가의 새로운 관점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평가 모델을 고안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유럽공통참조기준』에 대한 기술의 부분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접근법의 상호작용(interaction)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행위중심 접근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출현 배경, 언어교수 방법론상의 특징, 언어철학, 평가에 대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을 참조하여 우리의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면서 평가를 보는 두개의 패러다임인 ‘평정’(contrôle) 측과 ‘양성/정보’(formation/information) 측을 비교하고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관과 교육목표의 실현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질적평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 자료로는 유럽평의회 주도로 개발된 『유럽인을 위한 언어 포트폴리오』를 참조하여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질적평가 모델로서의 포트폴리오를 고안하였다. 한정된 지면 사정상 본 논문에서의 과제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위한 실용적인 항목 설계로 한정하고 전체 구성의 외형과 개별 항목의 실재를 보여주는 일부 모델을 제시한다.

주제어 : 유럽공통참조기준, 행위중심 접근법, 포트폴리오, 질적평가, 형성평가, 자기평가, 과정평가, 자기주도 학습

I.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개정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2007, pp. 2~5)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를 보면 모방보다는 창조, 지식보다는 지혜, 분석보다는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교육과정 개선방안에 대한 초기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한다.

“앞으로 학교교육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교육단위가 아니라 학습자 개인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되리라 본다.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에서 학교교육의 과제는 각각의 학습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속에서 활동하며 그때그때 외국어 학습의 최적화를 이루도록 판단, 선택, 활용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길러주는 것은 외국어 교사가 특히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제2외국어과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2005, p. 177)

위 연구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l'apprentissage auto-dirigé)을 확산시켜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평가의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고민의 출발점은 삶의 과정 자체를 지식의 창조적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보는 구성주의 인식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교수(instruction)에 의한 지식보다는 구성적 지식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경험적 믿음에 있을 것이다. 그 성찰과 모색의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몇몇 방법론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접근법을 『유럽공동참조기준』에서 만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이념과 실행 원리를 찾아 우리의 현실적 학습 여건을 수렴하면서도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자기 주도적 전망을 수용하는 실천적 평가 방법을 고안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논문의 개요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우리의 의도에 따라 ‘유럽공동참조기준’과 ‘포트폴리오 설계’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II장에서는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10년 연구의 소산물이자 의사소통 접근법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는 CECR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차례로 그 출현배경, 정체성과 언어교수법으로서의 특징, 언어에 대한 철학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구상을 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 평가의 설계를 위하여 먼저 평가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비로 시작하여 질적 평가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유럽평의회가 주도한 포트폴리오 모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모델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지면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의 실제 부분은 일차적으로 포트폴리오 항목 고안으로 한정하며, 형성평가, 자기평가, 과정평가 및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포트폴리오 틀의 일부를 제시한다.

Ⅱ.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이해

1. 유럽공통참조기준의 탄생 과정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연합’(Union européenne)의 대의기관이자 법률, 교육, 문화 기구를 거느리고 있는 ‘유럽평의회’(Conseil de l’Europe)¹⁾는 외국어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언어정책분과’(Division des politiques linguistiques)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 수행되는 연구는 유럽의 언어교육 정책과 방향을 좌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유럽평의회가 수행한 연구를 시대별로 간략히 언급해 보면, 1950년대 구어(langue orale) 중심의 기본어휘목록 개발, 1970년대의 ‘언어(langue vivante) 교육’ 정책과 ‘유럽 이민자 교육’ 정책, 1979년 이후 80년대는 의사소통 접근법에 의한 언어 교수·학습 방법론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근자의 활동으로는 유럽 내에서의 언어교육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공통 참조기준을 구상하고 10여년에 걸친 연구 성과물을 출간하게 된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하나의 유럽’이라는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경제적 장치가 유로(euro)라고 한다면 언어교육의 인프라는 유럽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s Références pour les Langues, 이하 CECR로 약칭)이라고 할 수 있다. CECR은 1970년대말 이후 언어교수법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킨 의사소통접근법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국어교육 환경과는 조화로우 수 없는 ‘상호작용’(interaction) 패러다임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기에 특별히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수·학습·평가에 대한 참조기준이 되고 있는 CEC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그 탄생 배경을 간략히 알아본다.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이 일반화되어 있는 유럽의 대학, 연구소, 기관 및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거나 채용할 때 지원자의 언어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은 유럽 전체가 공감하는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²⁾ 이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스위스의 Rüschlikon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CECR의 탄생 배경으로 꼽는데, 《유럽 언어 학습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통일성 : 목표, 평가, 인증서》라는 회의의 주제

1) Conseil de l’Europe을 일컫는 말로 그 안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l’Assemblée parlementaire(유럽 의회)와 구별하기 위하여 유럽평의회로 번역한다.

2) 프랑스어의 경우 DELF/DALF(Diplôme d’étude de Langue Française/Diplôme Approfondi de Langue Française), 스페인어의 경우 DELE(Diplomas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독일어의 경우 ZD(Zertifikat Deutsch) 시험은 나라마다 성격과 기준과 등급이 달라 참조기준으로서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는 새로운 언어교육을 위한 참조기준이 담아내고자 하는 유럽인의 신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소위 ‘온화함 속의 혁명 또는 진보’(Rosen, 2005, pp. 6~7)라고 일컬어지는 CECR은 10년에 걸친 유럽평의회 소속 언어분과위원회의 연구 결과물로 2001년 첫선을 보였다.³⁾ 이후 각 언어별 참조기준이 속속 출간되기에 이르렀고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05년도에는 프랑스어 판이 확정되어 출간되었다. 연구를 주도한 이들로는 *le Niveau-Seuil*를 기초했던 프랑스의 Daniel Coste를 비롯하여 영국의 Brian North, 독일의 Günther Schneider를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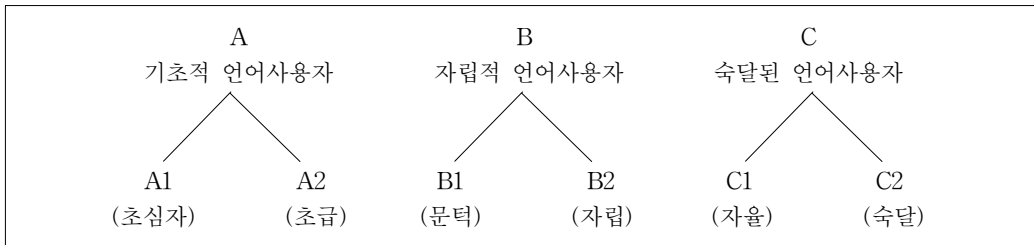
2. CECR의 성격과 행위중심 접근법

CECR은 머리말에서 “유럽평의회가 표방하는 외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언어교수, 학습, 평가를 위한 참조기준”(2005, p. 4)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일부 해설서와 연구(Rosen, 2005, p. 13; Rosen, 2007, p. 9)에서는 CECR의 성격을 개별 언어와 개별 문화에 대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상호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유럽평의회가 추구하는 언어철학에 맞게 디자인된 언어교육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안내자 같은 성격의 참조문헌으로 이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CECR은 언어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지표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 우리의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같이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을 명시한 ‘처방적’ 성격의 지침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문헌은 아닐지라도 유럽의 초, 중, 고등교육 기관에 미치는 CECR의 비중은 단순한 참조문헌 이상의 것이라는 점은 각국의 언어정책의 변화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일례로 2005년 프랑스 교육부에서 외국어 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공포한 교육부 참조기준이 CECR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발표된(2005, 2006, 2007) 외국어 학습 개혁을 위한 정책 조항들은 CECR을 근거로 하여 초등학교 졸업 시는 A1, 중학교 졸업 시는 B1, 고등학교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학년에서는 B2 수준의 성취를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다. CECR이 제시하는 외국어 학습자의 수준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6개의 수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단계는 말하기(oral) 영역과 쓰기(écrit)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3)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판은 2001년에, 체코어, 헝가리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판은 2002년 출간되었다.

〈표 1〉 CECR에 따른 외국어 능력 분류(2005, p. 25)



이 분류는 프랑스 교육부가 부여하는 프랑스어 능력증서인 DELF/DALF 시험의 수준을 결정하는 준거⁴⁾로도 채택되었다. 또한 교육과정 세부지침을 보게 되면 CECR이 추구하고 있는 교수법적 관점과 방법론을 교실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외국어 교사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널리 소개되고 활용되고 있는 CECR은 프랑스의 공교육 기관에서 외국어 교육이 지향해 나갈 방향으로 채택되어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향을 재단하는 강력한 준거라고 하겠다.

한편 행위중심 접근법(l'approche actionnelle)이라는 개념이 유럽의 언어교수법의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CECR에서 '*une perspective actionnelle*'⁵⁾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부터이다. 행위중심 관점이란 의사소통 접근법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수방법의 하나로써 사회적 행위를 수행하는 학습자 요인을 중시하고 앞의 과정으로서의 교육적 활동과 그 결과물에 관심을 두는 접근법으로 그 실체를 요약할 수 있겠다. CECR은 행위중심 접근법의 고유한 성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행위중심 접근법에 고유한 관점은 언어 사용자 및 언어 학습자를 포괄적으로 사회적 행위자로 보는 행위 중심적 성격에 있다. 사회적 행위자란 특정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단순히 언어적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인간을 말한다. [...] 행위중심 접근법에서는 사회적 행위자가 가지고 행사하는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 자원을 비롯한 능력의 총체에 관심을 둔다. (CECR, 2005, p. 15)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접근법과 차별화되는 행위중심 접근법의 고유한 성격을 다음 두 가지로 규정해본다.

먼저 '사회적 행위자'(acteur social)로서의 학습자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행위자로서

4) A는 DELF 1단계, B는 DELF 2단계, C는 DALF.

5) 이후 발간된 CECR 관련 연구서들에서는 *approche*와 *perspective*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행위중심 접근법으로 번역한다.

의 주체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언어생활을 분석해 보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하다’라는 대화(dialogue)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다’ 즉 함께 하는 ‘공동 담화행위’(discours collectif) 차원으로 확장된다. 개인적 상호작용에서 ‘너’의 존재는 ‘나’와의 담화 속에서 정착된다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사회적 행위 속에서 행위주체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CECR이 추구하는 언어행위의 성격을 Puren은 의사소통 접근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CECR 저자들은 70년대 의사소통 접근법과 그 중심개념인 ‘언화행위’(actes de parole) 이론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자 했다. 인간의 언어행위는 단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적 행위와 관련된 때만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02, p. 7)

다음으로 ‘과제’(tâche) 수행을 전제로 하는 학습 방법론을 들 수 있다. 언어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로 작용하며 언어 4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은 목표에 맞게 과제의 완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하며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CECR에 제시된 과제중심 학습의 원칙이다. 이 때의 과제는 사회에서 부딪치는 실제 과제(tâche réelle)와 언어학습을 위하여 디자인된 교육적 과제(tâche pédagogique)로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중심 접근법의 실행 원리는 과제를 중심으로 ‘더불어 행하기’(faire-ensemble)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실행원리는 1990년대 말 의사소통 접근법 하에서 영미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된 TBLT(Task-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어 그 방법론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Puren(2006b, p. 11)은 TBLT의 과제가 가상의 재현(simulations)에 기초하고 있다면 행위중심 접근법의 과제는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총괄 설계 곧 행위(actions)에 있다는 말로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3. CECR과 다중언어주의

CECR은 ‘다중언어주의’(plurilinguisme)를 이념적 지표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반(反)하여 ‘다언어’, ‘다문화’를 기치로 삼고 유럽의 언어정책을 선도하고자 하는 유럽평의회(회의)의 정치적 소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CECR(2005, p. 11)에 근거하면 다중언어주의는 ‘다언어주의’(multilinguisme)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단순히 학교에서 외국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여러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하거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다언어주의에 기초한 정신이라면, 다중언어주의는 한 인간의 언어적 경험이 가정, 학교, 사회의 언어를 거치면서 다른 민족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궁극적으로 서로의 언어가 상관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언어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Francis Goulier⁶⁾는 내한 강연에서 “유럽평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CECR의 근저에 흐르는 철학은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평등하게 보고 존중하는 다중언어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세계화’와는 다른 축에서 ‘지구촌’을 표방하고 있는 국제문화 패러다임과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회현상이라든가 외국어교육 정책에 수반되는 전략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다중언어주의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와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L1, L2, L3…… Ln가 분리되며 대립한다는 일반적 언어 이론과는 입장을 달리하는 다중언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외국어교육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원어민 화자’의 언어수준을 최종 모델로 삼고 있는 목표어(L2) 교육에 집중하기보다 언어를 배우는데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세상에 편재하는 모든 언어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의 방향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다중언어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문화적 입력을 최대한으로 제공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성장 가능성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언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습은 완벽한 L2 구사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상호이해를 강조하는 다중언어주의의 입장이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자극하여 외국어에 대한 심리적 부적응은 물론 언어 학습 시의 소극적 태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CECR을 관통하는 다중언어주의 철학이 영어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보는 시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를 자문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4. CECR과 평가의 시각

CECR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은 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CECR은 마지막 장을 평가를 주제로 하여 평가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기술적 용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앞의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의 패러다임은 크게 두 가지로 확연히 구별된다고 본다. Tagliante (2005, p. 10)는 평가에 대한 이 두 패러다임을 정량적인 수치 측정으로 이루어지는 ‘평정’(contrôle)의 영역과,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이루어지는 정성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양성/정보’(formation ou information)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평정 축을 대표하는 방법은 점수나 규범에 의한 것으로 흔히 총괄평가(évaluation sommative)라고 명명된다. 사람을 기르거나 정보

6) 프랑스 교육부 언어 담당 장학관, 유럽언어 포트폴리오 심사위원장, 유럽의회 언어정책분과 프랑스 대표 역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술대회(2007. 6. 29) 자료집 “성공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준 설정” pp. 29~36 참조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정보 축의 평가 방법으로는 형성평가(évaluation formative), 절대평가(évaluation critériée), 자기평가(auto-évaluation), 과정평가(évaluation de processus)를 들 수 있다. 이 중 대표적 양적평가 방법인 총괄평가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형성평가를 질적 평가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CECR의 의의를 평가와 관련하여 말해보자면 언어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기존의 평정 위주로 재단된 총괄평가 방식에 대하여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를 갖춘 형성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Puren(2006b, p. 6)은 CECR의 특징으로 교수·학습·평가 체계에 대한 응집력을 들면서 《평가에 있어서의 ‘긍정적’ 평가》라는 말로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CECR의 개발과 더불어 행위중심 접근법의 이념과 원리에 입각하여 ‘유럽인을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 européen des langues, 이하 PEL로 약칭)라는 새로운 관점의 평가의 틀을 고안하여 제시하고 각 언어별로 개발하는 작업은 물론 학습자 집단의 성격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포트폴리오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PEL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성취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는 자기평가 개념만이 아니라 양성/정보 축의 평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질적 평가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CECR의 관점에서 자기주도적 평가의 방향을 설정한 PEL의 구성을 참조하여 우리의 FLE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항목을 설계해본다. 구체적인 내용 항목을 살펴보면서 양적평가 위주로 실행되고 있는 평가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한다.

Ⅲ. 포트폴리오 설계

1. 포트폴리오의 개념과 유형

포트폴리오(portfolio)는 개인의 성취물과 관련된 작품의 표본을 모아둔 자료집이나 서류철을 뜻하는 것으로 예술, 광고, 건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자 방법이었다. 교육평가 영역에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의 개념은 미국 오래곤 주 포틀랜드에 있는 교육연구소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박영만 외, 2002, p. 211). 백순근(2002, p. 44)은 대학원에서 지도교수가 학생의 논문을 지도하고 심사하는 방식에 비유하여 포트폴리오 평가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기법을 활용한 평가는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2000년대에 들

어서는 『언어교육을 위한 유럽인의 포트폴리오』가 고안되면서 기존의 ‘평정’ 중심의 양적평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양성/정보’ 중심의 질적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둔 새로운 개념의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포트폴리오 평가란 학습자가 학습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자신의 학습활동과 성취도를 보여주기 위해 모아둔 작품이나 수행결과, 기록물 등을 이용한 평가를 이른다. 물론 자료는 일정한 목적과 체계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며 성취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나오게 된 과정과 학습자의 노력과 변화의 정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자기평가, 과정평가, 질적평가라는 새로운 개념에서 출발하는 포트폴리오는 1990년대에 들어 학습자중심 개념이 보편화되면서부터 많은 나라에서 과정중심의 평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실험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포트폴리오 유형은 학습과정 기록 중심의 《Process folio》와 학습결과 중심의 《Product folio》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가 작품 및 과제물 제작 과정의 활동과 범위를 기록하는 것이 라면 후자는 학습 결과물 실체에 대한 기록이자 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연희(2000, pp. 120~121)의 분류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유형을 전시형, 수집형, 관찰형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비교해본다. 제시하고 있는 사례는 연구자와 동료들이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방법들과 연구자가 설계한 것들로서 현장의 필요와, 적응력, 학습자 친화력이 높은 방법들이다.

- 전시형 포트폴리오 :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한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결과물의 성취도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학습과정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학습과 관련된 특정 행사에 참가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한·불문화경연대회 전시/발표부문 참가작품, 프랑스시낭송대회 참가작품, 한국문화/역사알리기 대회 참가작품, 프랑코포니주간 프랑스어 사진경시대회 출품작, 학교 축제 프랑스문화반 전시/발표 작품
- 수집형 포트폴리오 : 학습자들이 일정 단위로 학습한 내용을 꾸준히 모아두는 서류철로 학습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무계획적으로 자료가 수집된다면 평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예> 학습자의 경우 노트정리 및 핸드아웃 교재정리 모음, 과제 및 프로젝트 스토리보드 모음, 교수자의 경우 수행평가 지도학생 명단과 특기사항(노력, 발표, 출결사항...)이 적힌 교무수첩
- 평가형 포트폴리오 : 학습활동 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학습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교육평가에서 특히 필요한 유형으로 언어학습 발달과정과 학업성취도를 보여주는 결과물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음집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예> 과제중심 수업 활동 결과물, 프로젝트 수업 활동자료 및 결과물, 수행평가 준비 자료 및 결과물, 자기평가·동료평가·교사평가 자료 등

2. 포트폴리오 평가의 필요성

양성/정보 축의 평가는 평정 축과 비교해 볼 때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이며, 양성/정보 축의 시각은 지식을 ‘선택’하는 능력 보다는 ‘생산’하는 능력을 중시하는 구성주의 교육관에 부합되는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제도권 교육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과 함께 형성평가, 자기평가적인 안목에서 고안된 평가방식들이 교육현장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백순근(2002, p. 3, p. 10)은 “다양화·전문화·특성화 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이제는 학생평가(혹은 시험)에 대한 관점을 바꿀 시기가 왔다”, “선택형 검사를 위주로 하여 학생을 선발·분류·배치하기 위한 선발형 평가 혹은 양적평가 방식에서, 수행평가를 위주로 하여 개별 학생에게 지도·조언·충고하기 위한 충고형 평가 혹은 질적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세계적인 추세는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적평가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피드백(rétroaction) 효과와 정보를 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수업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성격의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발전 단계를 파악하여 방법적 개선과 교정을 유도해 나가는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과정 자체가 평가도구이자 평가방법이므로 학습자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 증거가 되는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수자의 피드백에 따라 변화해가는 학습자의 기록 과제 활동 내용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언어를 배우고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긴 과정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 본연의 목적은 물론 타당도, 실용도 측면에서는 지극히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판단하며 특히 수행평가의 개념과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권 교육에서 수행평가는 현재 지필고사와 함께 합산하여 점수로 나타나는 총괄평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정 보다는 양성/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질적평가 본래의 성격과는 괴리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앎 = 즐거움 = 행복 =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진정한 의미의 평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범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제도권 교육에서도 질적 평가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3. PEL의 성격과 구성

CECR의 제작을 주도한 유럽평의회는 CECR이 기술하고 있는 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평가의 방법으로 다음 3가지 방식을 고안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제작된 새로

운 개념의 평가 모델이 유럽인을 위한 포트폴리오(*Portfolio européen des langues*, 이하 PEL로 약칭)이다. PEL은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의 정체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들 PEL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념은 우리에게 아직 낯선 ‘자기평가’(l’auto-évaluation)라는 개념이다.

- *Passeport de langues*(언어 여권) : 언어기능별 프로필, 언어능력 점검을 위한 자기평가 틀, 상호언어·문화 경험의 기록장, 소지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과 이수증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소책자이다.
- *Biographie langagiere*(언어 자서전) : CECR이 제시하는 언어능력과 언어기능별 수준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세세하게 선정해 두고 해당 언어별로 자신의 언어수행능력을 체크하게 만든 일종의 언어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 *Dossier*(기록장) : 포트폴리오에 담긴 모든 정보를 확인해주는 자료를 입력하는 곳이다. 예컨대 15세 이상용(Didier 2006) ‘어떻게 배울까?’에서는 목표, 학습태도, 애로사항 등을 적게 하고, ‘내 생애의 언어들’에서는 해외체류경험, 외국문화의 발견, 언어능력, 학습과정 등을 기록하는 난을 마련하고 있다.

PEL은 외국어를 배우는 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재료를 담고 있는 교수·학습 목록으로서, CECR의 이념에 따라 자기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EL 속에 별책의 형태로 제공된 *Passeport de langues*라는 소책자는 언어학습 기록장, 자료집, 다양한 자료와 양식을 설명과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교수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학습과정 전반(학습기관 및 기간, 외국문화 체험 경험…)과 언어능력 수준(자기 진단표, 자격증…)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학습자의 PEL을 열어 보면 교수자는 개개인의 총체적 언어능력과 언어 기능별 장단점을 파악하여 차후 학습 계획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돋보인다. 따라서 자기평가의 기록장인 PEL은 교수·학습의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당사자의 언어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를 제공하는 평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4. 적용을 위한 구상

그렇다면 포트폴리오법이 현 상황에서 우리의 수행평가 방법의 하나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평가체계 및 체제와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가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긴요한 전제는 무엇보다

교육주체 상호간에 포트폴리오 작성의 의의와 평가로서의 효과에 대한 공감대일 것이며, 채점 과정과 그 기준에 있어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집될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어 교수학습을 통한 지적, 정서적 성장과 성취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자의 신념에 따라 만든 포트폴리오 평가 모델과 언어기능별 평가항목으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한다.

우리의 포트폴리오 모델은 자기평가라는 새로운 개념의 평가철학을 적용하여 학습자 자신이 성취한 영역을 가시적으로 확인해가면서 학습에의 욕구를 스스로 자극할 수 있도록 정의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학습자 연령층의 성향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시각적인 효과 및 유희적 요소도 고려하여 항목을 설계하였으며 내용 항목은 교육목표와 언어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학습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우리의 모델을 활용할 때는 학습자의 언어구사 수준에 따라 입력 언어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CECR이 추구하는 다중언어주의 이념에 따라 초보학습자의 경우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프랑스어로 답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면 일차적으로 모국어나 중간언어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 항목을 채워나가도 좋도록 설계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의 표현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어로 표현해보려는 욕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수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평가항목은 학습의 당위성, 유용성, 시사성, 문화상식, 상호문화의식 및 학습자의 통합교과적인 배경지식에 대한 자기점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밖에 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여 유희적 요소가 가미된 주제를 택해 관심도를 높이고 지적호기심이 언어학습을 자극할 수 있도록 내용 항목을 수준별로 배치하였다. 물론 교사의 피드백에 소요될 엄청난 시간을 비롯하여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의 신뢰도(fiabilité), 타당도(validité), 실용도(faisabilit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포트폴리오 모델에 대한 현장교사 설문(30명 대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포트폴리오 평가 실시 의사와 학

7) 3번 ‘포트폴리오’를 이용한 평가를 실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3	8	18	1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시간 부족, 점수화하기 어렵다.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문화접촉 부족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습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공부한다면 교수자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보면서 더욱 섬세하게 가르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학습자의 성취감을 유발. 수행평가에 사용하기 적절한 평가. 학습과정과 연관된 진정한 의미의 수행평가로 학생의 성취수준과 적절한 피드백이 가능한

습자 동기유발을 묻는 항목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점수로 연결되는 수행평가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도와의 마찰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설문에 나타난 교사들의 첨언을 종합해보면 포트폴리오 평가의 의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양적평가의 합리와 효율이 질적평가의 당위와 가치와 함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 항목들이 교육과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를 비롯한 질적평가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사회에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5. 포트폴리오 설계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설계 시 고려한 조건들과 활용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대상 : 국내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한국의 고등학생(일반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특성화고, 국제고)을 대상으로 한다.
- 제작 : 교재를 만든 출판사에서 교과서, 워크북과 함께 제작하여 배급하거나 담당교사가 개별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평가라고 생각. 학습자의 노력과 향상정도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므로. 경쟁보다 자신의 발전에 주목하게 하는 평가이므로.

8번 ‘포트폴리오’를 수행평가로 이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체크)

① 신뢰도 결여	② 타당도 결여	③ 실용도 결여	④ 제도와의 마찰	⑤ 평가자 이해부족
7	5	5	15	6

기타 : 평가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 이 평가를 하는데 적절한 평가자의 언어적 훈련, 문화적 이해가 없다면 잘 활용되기 힘들 것

9번 ‘포트폴리오’의 학습자 동기유발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4	20	6

부정적(매우 부정적)이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긍정적(매우 긍정적)이라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새로운 언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 보다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동기유발. 스스로 자신에 대해 알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쌓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동기유발. 가시적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 수행평가는 외재적 동기가 매우 강함. 구체적 실제 상황에서의 프랑스어 어휘, 표현, 문화 생각 유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탐색이므로 동기유발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나, 한편 다소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됨. 새로운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작업의 매력, 실력의 발전을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성취감 증대.

- 기간 : 프랑스어 I (주당 3시간 기준 100시간), 프랑스어 II(주당 2시간 기준 70시간) 이수 전 과정에 걸쳐 완성하도록 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항목은 조절할 수 있다.
- 성격 : 자기평가, 형성평가, 과정평가 성격의 평가도구로 활용하거나 프랑스어 수업과 병행하는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 구성 : 전체 항목의 구성은 PEL(2003, 2006)에서 제시한 《여권 - 자서전 - 기록장》을 참조하여 3단계로 나누었으나 《나는 누구인가? - 무엇을 알고 있지? - 어떻게 알게 되었지?》라는 제목에서 보듯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나’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 나의 정체성, 나의 학습 과정, 나의 언어 체험 기록장이 될 수 있도록 내용 항목을 선정하였다. 구성주의 교육에서 교수자의 이상으로 삼고 있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질적 평가 및 과정평가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교수자의 피드백을 바로 볼 수 있는 의견란을 확충하였다.
- 평가 방법 : 자기평가 도구로 활용 시는 특정 단원에서 해당 주제를 배운 뒤 스스로 항목을 채워 나가도록 하는 방법과, 수행평가 도구로 활용 시는 수업 후 관련 항목을 일러주어 완성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교사의 피드백에 따른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점수화할 수 있다.
- 유의점 : 학습자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언어 수준과의 괴리의 문제는 CECR이 추구하는 다중언어주의 정신에 따라 우리말이나 여타 언어의 사용을 열어주고 그림이나 아이콘의 사용도 허용한다. 학습 단계가 높아지면서 학습자가 기록해 둔 동일한 내용을 프랑스어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이전 기록을 지우지 말고 색을 달리하여 기록하게 하여 자신의 언어능력의 발전 단계를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항목별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항목(◇ 기준) 또는 소항목 별로 A4 한 페이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학습자는 자신이 달성한 만큼의 정보를 입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된다.

(1) Qui suis-je ? (나는 누구인가?)⁸⁾ * <표 2 참조>

- ◇ 개인 신상정보 : 성, 이름, 별명, 생년월일, 나이, 학교, 학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ID, 취미
- ◇ 개인 사진 및 상징물 : 유년시절 사진, 현재 사진, 가족과 함께 한 사진, 아바타

8) CECR에서는 4가지의 능력(savoir, savoir-faire, savoir-être, savoir à apprendre)을 강조하고 있는데 (1)은 인성과 태도에 해당하는 savoir-être 영역을 고려한 항목이다.

- ◇ 기호, 아끼는 물건 : 가장 아끼는 물건 셋
- ◇ 기호, 아끼는 사람 : 가장 소중한 사람 셋
- ◇ 5년 후 자화상 : 학업 관련
- ◇ 10년 후 자화상 : 직업 관련
- ◇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
- ◇ 해외여행 경험국가/희망국가

(2) Que sais-je ? (무엇을 알고 있지?)

◆ 지구촌의 나 : 일반지식⁹⁾

- ◇ 세상과 나 : 지구상의 6대륙 표시(세계지도 제시), 한국과 프랑스의 위치 표시(세계지도 제시), 프랑스어권의 개념 알기, 프랑스어권 국가 조사하기, 다양한 언어의 지위 알기(모국어, 공용어, 제2언어, 외국어의 개념)
- ◇ 지리적 지식 : 인접국가 바로 알기, 대양과 바다 이름 알기, 주요도시 조사하기, 하천과 산맥 지도상에 표시하기
- ◇ 시사적 지식 : 지리적 위치(한반도+독도), 정치적 상황(북한), 내가 사는 도시, 프랑스(인)와의 역사적 접촉(천주교, 병인양요),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이미지, 한류의 현주소, 프랑스에 알려진 한국 상표,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회사, 프랑스 내 한국의 흔적,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 기관
- ◇ 우리 안의 프랑스 : 외국인/프랑스인 체험 경험, 외국/프랑스 음식 체험 사례, 프랑스의 이미지, 한국에 소개된 프랑스 상표, 프랑스어에서 온 외래어
- ◇ 프랑스에 대한 나의 관심 : 생활 문명(축구,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사이트, 상품, 영화, 뮤지컬, TGV, Eurostar, Airbus, Ariane, Union européenne, euro, 포도주, 치즈), 제도 및 문화(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랑제꼴, 바칼로레아, 축제, 휴일, 방학), 역사, 산업
- ◇ 사회 속의 나 : 부모, 형제, 애완동물,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생님 소개

◆ 나의 발전 : 언어활동¹⁰⁾

- ◇ PRODUCTION ORALE : 인사, 축하, 소개, 감사, 사과, 행동 요구, 질문, 대답, 요청 및 요구
- ◇ PRODUCTION ECRITE : 급우/외국인과의 교신(편지, 이메일), 우편엽서, 초대장, 승

9) CECR에서 정의하는 능력(compétence)은 언어적인 것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일반 지식을 포괄한다.

10) CECR에서는 기존 언어 4기능을 메시지 해독과정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용 활동으로 설명한다.

낙/거절, 서류작성, 일정표, 일기, 주제발표

- ◇ RECEPTION ECRITE : (메뉴, 시간표, 안내문, 광고에서) 원하는 정보 찾기, 텍스트 내용 이해(짧은 메시지, 사적 편지, 조리법, 놀이 설명서, 짧은 요약문, 쉬운 기사, 만화, 상송가사, 시에 나타난 정서, 수업의 주제, 영화 줄거리)
- ◇ RECEPTION ORALE : 듣고 이해(단순한 대화, 일상 대화, 사람/사물에 대한 묘사, 장소/상황에 대한 묘사, 전화대화, 라디오 일기예보, TV 뉴스, 간단한 질문, 간단한 요구, 간단한 임무, 명쾌하고 짧은 메시지)

(3) Comment je le sais ? (어떻게 알게 되었지?)¹¹⁾

- ◇ 문화 관련 스크랩
- ◇ 독서 체험 기록장 : * <표 3> 참조
- ◇ 언어 학습 경험 기록장 : * <표 4> 참조
- ◇ 일별 학습 과정 기록장 : * <표 5> 참조

11) CECR에서 말하고 있는 학습능력 'savoir-apprendre' 영역을 고려한 항목이다.

〈표 2〉 p. 2 나는 누구인가?(Qui suis-je ?)

PASSEPORT : ♪ Je me présente		♪ C'est moi (photo 1, 2, 3)					
nom : prénom : surnom : date de naissance : âge : école : classe : adresse : téléphone : courriel(=email) : blog : ID : passe-temps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Quand j'étais petit(e) 유년시절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Maintenant 현재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Avec ma famille/ mes amis 가족/친구와 함께 </td> <td style="padding: 5px;"> C'est mon <i>avatar</i>. 나의 아바타 </td> </tr> </table>		Quand j'étais petit(e) 유년시절	Maintenant 현재	Avec ma famille/ mes amis 가족/친구와 함께	C'est mon <i>avatar</i> . 나의 아바타
Quand j'étais petit(e) 유년시절	Maintenant 현재						
Avec ma famille/ mes amis 가족/친구와 함께	C'est mon <i>avatar</i> . 나의 아바타						
♪ Ce que j'aime 내가 좋아하는 건		♪ Ce que je n'aime pas 내가 싫어하는 건					
1.	1.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Moi dans 10 ans 10년 후의 나</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Les langues que je parle 내가 구사하는 언어들</div>					
2.	2.						
3.	3.						
♪ 3 objets les plus importants pour moi 소중한 물건들 셋		♪ 3 personnes les plus chères pour moi 소중한 사람들 셋					
1.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 Les pays que j'ai visités 가 본 나라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 Les pays que je veux visiter 가보고 싶은 나라 </td> </tr> <tr> <td style="height: 50px;"></td> <td></td> </tr> </table>		♪ Les pays que j'ai visités 가 본 나라	♪ Les pays que je veux visiter 가보고 싶은 나라		
♪ Les pays que j'ai visités 가 본 나라	♪ Les pays que je veux visiter 가보고 싶은 나라						
2.	2.						
3.	3.						

〈표 3〉 p. 18 독서 체험 기록장(Souvenirs de lecture)

<p>🎵 La littérature française(문학작품)</p>	<p>🎵 Les expressions à noter(감동적인 구절)</p>
<p>date : de à</p> <p>titre :</p> <p>auteur :</p> <p>genre :</p> <p>remarque :</p>	<p>* 문학 텍스트의 경우 우리말로 읽고 감동적인 구절을 원문에서 찾아 필사하게 한다.(국어교과서에 소개된 프랑스 작가의 작품도 좋다.)</p> <p>(우리말 번역)</p> <p>(원문)</p>
<p>🎵 La poésie française(프랑스 시)</p>	<p>🎵 Les expressions à noter(감동적인 구절)</p>
<p>date : de à</p> <p>titre :</p> <p>auteur :</p> <p>genre :</p> <p>remarque :</p>	<p>* 시의 경우는 원문을 우리말 번역과 함께 제시하고 암송하게 한다.(시낭송대회 준비)</p> <p>(시 원문)</p> <p>(자작 번역)</p>
<p>🎵 Les livres sur la France(프랑스 관련서)</p>	<p>🎵 Les expressions à noter</p>
<p>date : de à</p> <p>titre :</p> <p>auteur :</p> <p>genre :</p> <p>remarque :</p>	<p>* 프랑스 관련 책의 경우 우리말로 읽고 감동적인 구절, 필요한 정보를 원문에서 찾게 한다.</p> <p>(우리말 번역)</p> <p>(원문)</p>

〈표 4〉 p. 19 언어 학습 경험 기록장(Les langues dans ma vie)

내 생애의 언어들 (Les langues dans ma vie)				
	모국어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시작 연령				
학습 기관				
선생님				
교재				
문화 체험				
현지 체험				
시험 & 테스트				
증명서 & 자격증				
특별한 기억 & 소감				
지도 교사 의견				

〈표 5〉 일별 학습과정 기록장 (Processus d'apprentissage) 모델

학습 과정(Processus de leçon)				
	date 일시	sujet 주제	activité 활동	produit 과제의 결과물
1				
2				
3				
4				
5				
6				
7				
8				
수 행 평 가				
지 도 교 사 평				
9				
10				
11				
12				
13				
14				
15				
16				
수 행 평 가				
지 도 교 사 평				

IV. 맺는 말

Alexakis¹²⁾는 또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일은 지난 시간의 감각과 기억을 되살리는 일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학습의 요체는 상상력이며 그 상상력의 바탕을 만드는 언어적 입력은 다양할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다중언어주의’라고 명명했으며, 이는 CECR이 표방하고 있는 철학이자 언어학습관이기도 하다.

개별 언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언어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vivre-ensemble), ‘함께 행하기’(faire-ensemble)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의 참조기준인 CECR은 유럽의 학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외국어 교수법 분야에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언어교수법의 새로운 전망이라 할 수 있는 행위중심 접근법과 과제중심 교수·학습 방법론은 우리의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자기주도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수요목 평가요목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참조기준이 되어준다고 본다.

상대주의적 지식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지식의 습득은 ‘교수’(instruction)의 효율성과 ‘구성’(construction)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교육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 방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보다 평가의 성격과 평가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평가, 자기평가, 과정평가의 개념을 수렴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도구의 하나로 포트폴리오 평가 모델을 고안하였다. 유럽평의회 주도로 개발된 PEL의 구성 방식을 참조하여 우리의 제도권 프랑스어 학습자를 위한 이상적인 질적평가 모델로서 실용적인 항목을 만들기 위하여 고민을 거듭한 결과물이다. 지면 관계상 20여 쪽에 달하는 세부항목을 소개하지는 못하고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첫 장, 독서 체험 기록장, 언어 학습경험 기록장, 일별 학습활동 기록장 모델만을 제시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첫 단계로 포트폴리오 항목 설계로 한정하며 포트폴리오 모델의 현장 적용과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는 꾸준히 진행 중이다.

12) 배움의 과정에서의 ‘자율성’의 중요성과 ‘다중언어주의’의 의의를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하고 있는 그리스 태생의 작가다. 그리스어와 프랑스어로 작품 활동을 하며 학계와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구사하는 4개 언어학습에 대한 경험을 다룬 *Les mots étrangers* (2005)로 메디치 상을 수상하였고 *Après J.C.* (2007)로 아카데미프랑세즈가 수여하는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개정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정평가원(2005). **제2외국어과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 박영만 외(2002). **홀리스틱 교육의 원리와 방법**. 엘리트.
- 백순근(2002). **수행평가: 이론적 측면**. 교육과학사.
- 최연희(2000). **영어과 수행평가의 이론과 실제: 대안적 평가의 제작**. 한국문화사.
- Alexakis, V. (2005). *Les mots étrangers*. Stock.
- Consil de l'europe (2005). *Cadre Européen Commun des Références pour les Langues*. Didier.
- Consil de l'europe (2003). *Portfolio européen des langues collège*. Didier.
- Consil de l'europe (2006). *Portfolio européen des langues 15 ans et +*. Didier.
- Puren, C. (2002). "Perspective actionnelles et perspectives culturelles en didactique des langue-cultures: vers une perspective co-actionnelle co-culturelle". extrait du "L'interculturel". *Les langues modernes*. juil-aout. pp. 55-71.
- Puren, C. (2006a). "Comment harmoniser le système d'évaluation français avec le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 APLV régionale de Grenoble Assemblée générale du 22 mars 2006. pp. 1-56. <http://www.mayeticvillage.fr/UJMrechercheFLE>
- Puren, C. (2006b). "Formes pratiques de combinaison entre perspective actionnelle et approche communicative: analyse comparative de trois manuels" APLV-Langues modernes.org. pp. 1-13. <http://www.aplv-languesmodernes.org>
- Goulier, F. (2007). "Why is France interested in the Common European Framewo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Successful language education: setting Standard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 29-36.
- Rosen, E. (2007). *Le point sur le Cadre Européen Commun des Références pour les Langues*. CLE international.
- Rosen, E. (2005). "La mort annoncée des quatre compétences - pour une prise en compte du répertoire communicatif des apprenants en classe de FLE". *GLOTTOPOL* - No 6 - Juillet 2005.
- Tagliante, C. (2005). *L'évaluation et le Cadre européen commun*. CLE international.

• 논문 접수 : 2008년 9월 1일 / 수정본 접수 : 2008년 10월 1일 / 게재 승인 : 2008년 10월 15일

ABSTRACT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 and Portfolio Design

- Portfolio item development for the Korean secondary French learners -

Sun-Young Yoon

(Temporary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Based on the new perspective of language teaching · learning · assessment proposed by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CEFR),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a pragmatic evaluation model for ‘self-directed learning’ in the Korean French learning and teaching context.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main parts: the descriptive presentation of CEFR a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mponents for the portfolio design. In order to understand CEFR which proposes a new perspective with a critical awareness of the shortcomings of communicative approach, this article presents its background, identity, methodological features, language philosophy and general view of evaluation.

While developing a portfolio applicable to Korean French classes, the research puts an emphasis on the value of qualitative evaluation as a proper way of looking at the *whole person* that the national curriculum pursues, comparing the two evaluation paradigms - ‘control’ and ‘formation/information’. Referring to the *European Language Portfolio* developed by the Council of Europe, the research introduces some parts of qualitative evaluation model for the Korean secondary students. It focuses on the introduction of ideal and practical portfolio items but the classroom application and its results are in the process of being observed.

Key words :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s for languages, actional perspective, portfolio, qualitative evaluation, formative evaluation, self-evaluation, process-oriented evaluation, self-directed learning